

9조弗 시장 잡는다… 경북도, 식품한류산업 3대 방향 설정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위해
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
식품기업 성장, 플랫폼 육성 추진

경북도가 지난 23일 식품한류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은 지난해 9조2861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K-푸드 수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은 농·임·축·수산물 생산에서 제조·가공, 유통·수출, 외식, 관광, 축제, 문화콘텐츠까지 가치사슬이 넓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다.

특히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 생산기반과 다양한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 푸드테크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식품산업을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는 식품한류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K-푸드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식품한류 플랫폼 육성을 설정했다.



지난 5월 19일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위한 만찬 메뉴.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가 오른다. /뉴시스

‘식품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선 포항의 식품로봇, 구미의 스마트제조,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과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역량을 연계해 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지역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 10일에는 경북도와 안동시, KAIST가 ‘정밀발

효 기반한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6일에는 구미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착공됐으며 17일에는 포항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준공됐다.

‘K-푸드 기업 성장기회화’를 위해선 우수한 원료를 활용하는 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인재·판로·수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 7월 경북도·구미시·오투기라면 간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업무협약이 체결돼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도는 기업지원 기관의 창업·투자·판로 기능과 대학의 연구개발·기술이전·인재양성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글로벌 식품한류 플랫폼 육성’은 경북의 음식과 식재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상품·외식·체험·관광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음식다미방·수운잡방·시의전서 등 경북이 보유한 전통 식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대표 음식과 전통시장, 축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K-미식벨트’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3대 방향을 더욱 굳히고자 식품한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글로벌 외빈 초청 미식행사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AI 교통체계 확대 시행

부산시가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한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인공지능(AI) 교통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신호 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운행·사고 정보를 받아 부산항 등 통행이 많은 구간의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보 적용 대상은 교차로 침수 감지, 신호 정보 개방, 실시간 신호 제어, 스마트 감응 신호, 위험물 운송차량 교통 정보 연계 등 지능형 교통 체계(ITS) 서비스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주시

관광택시 타면 상품권 증정

영주시가 10월 가을축제 기간 ‘영주 반평 관광택시’를 이용해 축제장을 찾는 관외 관광객에게 최대 2만 원 상당의 영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10월 3~4일 열리는 무섬와나무다리축제와 3~11일 풍기인삼축제다.

관광택시 이용객 가운데 1~2명 탑승 시 1만 원, 3~4명은 2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에게 받은 교환증을 축제장 지정 장소에 제시하면 되며, 상품권은 축제장과 영주시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교육청

일반고 찾아가 맞춤 진학지원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일반고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지원 프로그램 ‘우리 학교 진학 솔루션’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대입을 연계한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고, 학교별 진학지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창원시

매월 22일 ‘10분 소등’ 정례화

경남 창원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소등행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지난 22일 밤 9시부터 시청사를 비롯한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첫 정례 소등행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구의 날(4월22일)과 에너지의 날(8월22일) 등 특정 환경기념일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던 소등행사를 매월 22일로 정례화한 것이다.

이날 밤 9시가 되자 창원시청 본관을 비롯해 5개 구청과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실내·외 조명, 경관조명이 10분간 꺼졌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추석 연휴인 26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강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부강이’ 보러 추석 연휴간 32만명 몰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산시설공단, 비상근무 펼쳐
추석 이후 외해로 이동 계획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부강이’로 불리고 있는 상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26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강이 관람 인파는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몰려 북적였다고 시설공단은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10만1000명(주간 9만3000명, 야간 8000명), 25일 13만6000명(주간 10만명, 야간 3만6000명)이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찾아 추석 연휴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32만명에 달했다.

부강이는 지난 18일 처음 발견된 뒤 계속 수로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다가 추석 연휴 가족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

부산시·부산시설공단·동구청·경찰 등 하루 50명 안팎의 인원을 배치해 친수공원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비상근무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물관리원 등 관계기관은 상어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그물을 제작해 외해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자 감각 깨우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

의령군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의령군민공원과 솔바위 일원에서 ‘제5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부자의 감각’이다.

올해축제는안목·향기·미식·경청·실천·통찰 등 6가지 감각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군은 아이부터 부모, 조부모까지 함께 즐기는 가족형 축제로 행사를 꾸릴 계획이다.

지난해 제4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에는 4일간 34만여 명이 찾았고, 약 163억원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축제 주요 공간은 9개 존으로 구성된 ‘부자1번지 주제관’이다. 부자 돌잡이, 리치리치 진품명품, 리치리치 리듬게임, 리치리치 기부게임, 부자의 맹세 등 전시와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를 활용한 ‘AI 리치 컨디션’도 운영한다. 관람객의 얼굴을 분석해 ‘오늘의 부자 감각’을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과 미션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족 단위 참여 행사로는 리치명랑운동회, 리치패밀리 올림픽, 리치오락실이 준비된다. 어린이를 위한 리치 키자니아와 리치리치코드대회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경남 지자체,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온기’

사천·남해·하동, 지역화폐 확대

경남 사천시를 비롯한 남해군과 하동군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사천시는 9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평소 월 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개인 구매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율을 유지했다.

남해군도 9월 남해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는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지류 상품권은 2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상품권 결제액의 3%를 돌려주는 캐시백도 시행했다.

하동군은 9월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했다. 지난 1일 발행한 30

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자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14일부터 18일까지 추가 판매했다.

이들 지자체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마련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난 만큼 실제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도 관심사다.

다만 상품권 가맹 여부와 결제수단에 따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이 다소 어려운 전통시장 노점 등 일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남해군은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소규모로 발행되는 지류형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충남도, 中·아세안 시장서 75만弗 수출협약

‘제23회 中·아세안 엑스포’ 참가

충남도가 중국 남부와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서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7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 2026)’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2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전시구역 내 54㎡ 규모의 독립

충남관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 6개사와 함께 홍삼 제품, 화장품,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전시·홍보했다.

특히 참가기업별 전담 통역원을 배치해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고, 제품 설명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박람회 기간 총 117건,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3건, 7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중국을 순방 중이던 구본영 정무부지사는 지난 18일 충남관을 찾아 참가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